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1월23일 주일 설교입니다.

<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>

마태복음 6:33,34 / 새찬송가 413 (통일 470) 내 평생에 가는 길

1. 근심이나 염려는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며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

두려움이나 공포는 현실적으로 내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. 이는 충분히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쟁이나, 부도나, 질병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시는 분이십니다(시 27:1-3).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 받으면 문제로 인한 슬픔은 기쁨으로, 괴로움은 즐거움으로, 탄식은 찬송이 됩니다(새찬송가 91장 : 슬픈 마음 있는 사람).

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그 본질이 두려움이나 공포와 다릅니다. 이는 우리 마음에 숨어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질병이 없어도 막연하게 생겨나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 불행의 주범입니다.

더 놀라운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문제가 이런 막연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(욥3:25).

2. 근심이나 염려를 없애는 것은 무엇일까요

염려와 근심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(마6:34).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.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(막6:7).

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(막 16:17).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(요10:10).

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셔 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.

염려와 근심은 막연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를 물리치려면 또 다른 막연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나 확실히 있는 그 어떤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입니다 (렘29:11).

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입니다(요14:17), (롬8:27). 물론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(고전2:11). 그러나 성령은 나도 모르는 최상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.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복된 것을 아십니다.

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나아가 원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확신이 나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.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함입니다!

< 적용 & 실천 >

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? 그것들은 허상입니다. 그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!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시다.